

思想과 自然科學(一)

金容權

自然科學이 人文科學 中에서 가장 驚異할만하여 또 아마 가장 偉大性을 가지고 있음은 오늘에 있어서 그것을 是認하여야 할 줄로 생각되며 다시 그것의 發達이 더욱 顯著하게 될 將來에 있어서는 一層確實하게 是認될 줄로 생각된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의 손으로 恒常 持續적으로 그 成果를 높이어 갈 수가 있는 隨一의 것인 바를 確認할 수가 있으므로써이다. 다른 文化로 말할지라도 時代적으로 繼承되어 進歩한다 함을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決코 自然科學의 進歩 그것처럼 顯著할 수 없을 것이다. 어디에 그러한 相違가 있느냐하면 自然科學에 있어서는 다만 우리 人間이 直接으로 가장 巧妙를 極한 自然의 機構로부터 만든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잇다할 것이다. 말하자면 造物主로부터 直接 그에게서 秘訣을 傳授한다는 點에 있어서 그 比類를 보지 못하는 強味が 存在함으로써이다. 本來 우리 自身の 思惟機構로 말하더라도 그것은 巧妙한 自然의 一部에 依屬한 바지만 이것은 무엇으로든지 啓發케 하여 가지 아니하면 恒常 進化하기가 困難한것으로서 더욱이 그것도 매우 徐徐하게밖에 實現하지 못하는데에 反하여 思惟內容으로서의 自然科學的 知識이 顯著하게 急速히 進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벌써 充分히 經驗하여온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일찍 우리가 豫想하지 못하던 새로운 驚異的인 것이 恒常 附加하여 있는 것이다. 이것이 一般的으로 우리의 思想에 影響되지 아니치 못함은 當然한 것이다.

만흔 思想의 根源을 찾아보면 그것이 어느 經驗에 基因하여 있는 바를 아마 언제든지 指摘할 수가 있을 줄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古代에 있어서 一般을 風靡하고 있던 神秘的 思想과 같은 것은 自然에 對하여 만든 驚異를 體驗함에 依하여 스스로 起因된 바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同時에 自然에 對한 어느 規則性이 經驗되는 바에 依하여 自然을 支配하는 原理의 存在가 한 思想內容으로 具現하며 여기에 形而上學的 自然哲學을 由來하는 □因을 이룬 것이다. 如何間 이와 같이 하여 여러 가지 經驗이 思想內

容으로 드러오는 것이므로 恒常 새로운 知識을 供與하는 바 自然科學이 思想上으로 密接한 影響을 주는 바는 그 當然한 結果이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思想은 차라리 어느 때든지 새로운 自然科學的 知識에 依하여 育成되어 갈 수가 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思想은 直接으로 社會狀態에 依存하다고 할 만한 것이지만 그 社會狀態 그것부터가 歷史的으로는 自然科學의 發達에 依하여 左右 되어가는 바는 確實한 것이며 同時에 그것 그것의 社會에 對한 要請이 自然과의 關聯으로 求得할 수 있는 것도 決코 적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自然科學과 思想과의 交渉은 서로 매우 密接하게 되었다.

이 事實을 다시 一面으로 보면 人間은 結局 여러 가지 事實을 自然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여서는 스스로 一步라도 밟아 나아가지 못할 것을 그것이 暗示하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數學과 같은 것은 廣義로는 人間의 思想一部로 보히는 것으로서 그것은 純粹한 思惟的 論理 上에 成立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發達하기 爲하여는 오늘까지 如何히 만흔 刺戟을 自然科學의 知識으로부터 받아왔던 것은 數學史 上으로 明確한 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自然科學에서 全혀 孤立한 때에 그 發達이 어느 程度에서 停滯되고만 事實은 一例로 日本和算에서도 볼 수가 있고 朝鮮, 支那의 古代算學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밖에 다른 思想方面을 볼지라도 또 그와 같은 바를 볼 수가 있나니 이에 우리는 思想과 科學과의 交渉이라는 問題는 思想史 上으로 極히 重大한 것을 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自然科學의 成立以前에는 思想은 다만 日常經驗에 있어서 그 母體를 求하는 것에 지내지 못하던 것이었었다. 따라서 自然에 關하여는 上述한 바와 같이 于先 原始時代의 神秘的 思想으로 비롯하여 다음은 形而上學的 思想으로 옮기어 온 것이었었다. 그래서 이에 周知하는 바와 같이 宗教와 哲學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思想을 일즉 一般的으로 極히 깊게 뿌리가 백히어 後世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支配的이었던 바는 마침내 自然科學이 일어난 後에도 가끔 그것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爭鬪가 일어난 事實에 依하여도 알 수가 있고 또 自然科學 그것 自身속에 이러한 것들의 古代的 思想이 만히 드러백힌 事實로 보더라도 推知할 수가 있는 것이다.